봉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교육 자료 영상 온라인 수강 및 보고서 작성 가이드

1. 봉사 내용

○ 1개 영상당 3시간, 최대 4회 인정(최대 12시간)

- 아래 제시한 영상 목록 중 선택하여 감상 후 보고서 작성

○ 제출 방법

- 보고서 2~3페이지 작성 후 사이버캠퍼스에 제출
- 제출기한: **6. 28. 까지**
- 작성기준: 글꼴 KBIZ한마음고딕 R, 글씨 크기 10~11, 줄 간격 160%

○ 영상 목록

순번	강의	주제	소요시간	영상 시청 사이트
1	윤찬영(전주대학교 교수)	대학이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	23:42	사이버캠퍼스
2	김광혁(전주대학교 교수)	사회봉사, 정서적 재분배	32:22	사이버캠퍼스
3	KBS 다큐멘터리 3일	대구로 달려온 그들	48:39	https://bit.ly/3cYAwgw
4	EBS Culture	나눔의 법칙 시즌 1(1화~8화)	36:56	https://youtu.be/qgsrNPNkc7o

2. 보고서 작성 샘플

영상 수강 보고서

<table>
<tr><td>학과</td><td></td><td>학번</td><td></td></tr>
<tr><td>학년</td><td></td><td>이름</td><td></td></tr>
<tr><td>분반</td><td></td><td>담당교수</td><td></td></tr>
<tr><td>영상 제목</td><td colspan="3">나눔의 법칙</td></tr>
<tr><td>소감문</td><td colspan="3">1.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철가방 故 김우주 씨와 지하철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은 남궁정부 씨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누는 사람과 나누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나누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아직은 나눌 게 없어요”, “나중에 더 벌면 나누려고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앞에 소개한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꼭 가진 것이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꼭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2. 나누는 사람이 성공한다.
미국의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3가지 분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첫째, 기버(Giver): 남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 둘째, 테이커(Taker): 남에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 셋째, 매처(Matcher): 남이 뭔가를 해줄 때에만 자신도 보답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기술자 160명 대상의 연구의 결과는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인 부류는 기버(Giver)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타적인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에 밀려 도태된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을 향해 올라서는 부류는 기버(Giver)이고 그 이유는 지속된 시간 속에서 쌓아온 사회의 인정이라는 것이다. 자신보다는 타인과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버(Giver)의 선택은 믿음과 지지를 가져온다고 한다. 단기간 경쟁에서는 패자였던 기버(Giver)가 장시간 경쟁에서는 승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예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가난 속에서 자라야 했던 배정철 대표는 나눔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눔은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나눔을 불평등을 극복하는 힘이다.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게으름, 잘못된 습관, 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난이 온다고 쉽게 이야기한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물 부족의 시달리고 있고 더러는 더러운 물까지 마셔야 하는 현실에서 그로 이한 잔혹한 결과는 참혹하다. 오염된 물을 마시다 죽는 어린이는 게으른 것인가? 질병으로 들끓는 아프리카에서 45초마다 어린 이 한 명이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또한 1억 6천 명의 전 세계 어린이 노동자들은 낮은 급여에 하루 14시간에 이루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그들은 노력은 부족한 것일까? 이 상황을 본다면 ‘예’라고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 에 도와야 하는 걸까? 전 세계의 극빈층을 살펴보았을 때 아프리카 국가 수치는 54%,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은 단 1%라고 한다.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불쌍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돕는 것이다.</td></tr>
</table>

집중된 부, 집중된 교육, 집중된 의료 그 모 든 것을 가난한 나라에 돌려주는 것이다. 우리의 사 고의 전환을 통해 우리가 왜 가난한 국가를 도와야 하는 충분한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4. 내 재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유산의 대한 끊임 업는 범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창업주의 유산 분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상상을 뛰어넘은 치열한 공방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때론 유산의 분쟁이 가족을 갈라놓은 가장 치명적인 독으로 존재하여 가족의 다툼, 폭행, 심지어 가족 살해와 같은 일들로 벌어지고 있다. 유산 상속이라 하면 당연히 상속자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예로 세계적인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워런 버핏 회장을 들고 있다. 그의 별병은 오마하의 현인이자 투자 대통령으로서 시간당 평균 150만 달러의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워런 버핏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당신이 가진 부는 자식에게 물려줄 겁니까?” 그의 대답은 “나의 부는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한다. 두 번째 “그렇다면 자녀에게는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그의 대답은 “유산이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물려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 한다. 그는 이미 평생 동안 번 돈의 4분의 3을 환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버핏만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일까? 한국에서의 기부금 중 유산 기부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유산기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예로 전직 철도공무원 김창량 씨를 소개하면서 본인이 유산기부를 결정하게 된 것은 자기의 노력만큼이나 컸던 사회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유산기부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깐 즐겁고 세상 떠날 때 할 일을 찾아서 기쁘다 라고 이야기 한다. 유산 기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모은 재산이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도움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물 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5. 나눔도 습관이다.

우리 속담 중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다. 습관의 중요성을 말 하는 속담이자 습관 아닌 것이 없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눔도 습관이 되는 것일까? 질문하면서 록펠러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용돈의 10%는 반드시 이웃에게 돌려 주거라 라고 항상 이야기했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소년은 모자라는 용돈을 아껴가며 이웃을 위해 늘 십일조를 내어주었다. 그 후 세계 최고의 석유 왕으로 성장한 록펠러는 자녀들에게 용돈의 3분의 1은 자신을 위한 돈, 3분의 1은 저축할 돈, 나머지 3분의 1은 이웃을 위해 기부할 돈이라는 가문의 규칙을 만들어 나눔 명문가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나눔은 유명 명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나눔의 습관을 매일 출근 시 포털사이트 기부 코너에 1만 원을 기부하는 이영진 씨를 보여주고 있다. 나눔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나누게 되고 그렇게 사람에게 전파되는 행복바이러스가 된다. 이영진 씨는 내가 능력이 있는 한 죽을 때가지 나눔을 하고 싶다고 한다. 습관이 나눔이 되고 나눔이 습관이 되는 선 순환적 사회구조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

6. 나눔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 돈다.

나눔에서 부메랑 효과는 나눔이 가진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 효과를 가장 잘 말해주는 여성이 해리포터를 통해 세계적인 작가가 된 조앤 롤링이다. 조앤 롤링은 28세에 해고와 이혼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도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가 작가라는 꿈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사회가 베푼 나눔 복지급여였다. 빈 주머니에서 1조 원이 넘은 재산가로 달라진 그녀는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동유럽 보호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과 불치병 연구 사업에 힘쓰고 있다. 조앤 롤링은 이렇게 고백한다. 영국의 복지를 통해 일어섰고 영국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이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애국심의 표현으로 영국의 납세자로 남고자 한다고 말이다. 조앤 롤링에게 최소한의 복지혜택이 없었다면 그녀는 꿈을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으로 남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꿈을 이루게 한 영국 사회의 복지 부메랑이 되어 더 큰 나눔으로 돌아오는 기적도 만들었다고 말이다. 또한 기부천사로 더 유명한 류시문 한맥 도시개발 회장은 어릴 적 사로고 다친 다리와 청력상실, 가난으로 인해 어려운 삶 속에서도 대학 은사님의 나눔으로 가혹한 운명을 딛고 사업가로 상고하였다. “남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대학 은사님의 그 믿음과 신뢰를 한평생 잊을 수 없다며 가진 것 모두를 사회에 나누고 있다. 국가의 나눔이든 개인의 나눔이든 나눔은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고 그 힘이 결국은 더 큰 나눔의 부메랑으로 사회에 돌아오고 있다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7. 나눔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눔의 정의란 무엇일까? 내 것을 남에게 베푸는 일! 누군가를 돕는 것! 사람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직접 나누거나 혹은 남의 나눔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체의 면역력이 높아진 다는 것으로 흔히들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불리기도 한다. 나눔이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나눔이라는 연결 고리로 맺어진 나이면서 너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우리로서 사회의 면역력을 높이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8. 생명도 나눌 수 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장기이식 대기자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인체조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현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 나눔의 대표적인 예로 김기석 학생의 장기 기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장기기증은 장기기증자인 김기석 학생에 대한 사랑이며 기석이는 이제 다른 이들의 일부가 되어 살아 숨 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장기기증은 통한 생의 마지막 나눔은 그 나눔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장기기증은 아픈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나눔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혹은 우리에게 장기기증이라는 자체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일인 것 같기도 하다. 앞에서 보았던 여러 나눔 중에서 마지막 소개한 생명의 나눔은 나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이 나눔도 등급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눔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준다. 나눔은 작은 마음의 씨앗이다. 그 작은 마음의 씨앗이 내 안에 일어나길 바라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겠다. 또한 나눔이라는 영상을 통해 나눔에 대한 진정한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